

# 세상 사진 담기 서울夜景

글·사진 송영동·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실 사무관

붉은 노을이 밀려들고 북한산 너머로 누엣누엣 해가 침몰하듯 사라져 갈 때면 서울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27개 한강다리마다 자기만의 빛을 발하듯 조명이 켜지고, 한강 한가운데 세 개의 등근 섬 '세빛둥둥섬'이 빛을 내뿜는다. 동대문 시장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바뀌고 명동과 홍대에는 젊음이 넘친다. 광화문 광장 한편에는 공연이 한창이고, 모처럼 연인은 청계천 속에 발을 담그며 사랑을 속삭인다. 서울의 밤이 아름다워지고 있다. 먼 길을 달려 서울을 구경하기 위해 온 객들에게 서울의 밤은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낱 서울 한복판을 달구는 열기만큼이나 서울의 밤은 뜨겁다. 카메라 한 대 들고 그 속을 거닐어 본다.

## 대한민국의 패션의 중심 명동 그리고 동대문

명동의 밤은 주요 거리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노점상들이 조명을 밝히면서 시작된다. 명동 한복판을 한 바퀴 돌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점상에서 파는 액세서리 종류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가끔 유명메이커 신발들도 상당한 할인 폭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 야밤 쇼핑객들의 기쁨을 흠뻑 채우기도 한다. 하지만, 명동의 진짜 매력은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한 눈에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다국적 패션숍들이 밀집해 있고, 우리나라 양대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이 위치해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유행에 민감한 곳이다. 또한 최근에는 유니클로, H&M, 자라, 망고, 포에버21, 스파오 등 세계적 SPA(기획·디자인·생산·유통까지 한꺼번에 하는 패션브랜드) 브랜드의 집결지로서 글로벌 브랜드와 토종 브



명동의 밤은 쇼핑객들로 북적이다.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명동 가게에서 일어, 중국어를 보는 게 낯설지가 않다. 사진은 명동 한복판

랜드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소리없는 격전지이기도 하다.

명동이 패션을 리드한다면 동대문은 패션을 창조하는 곳이다. 명동의 각종 패션숍들이 고급화된 패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면 동대문은 창조성을 무기로 새로운 패션 문화를 창조해낸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쇼핑할 수 있는 동대문은 3만여 개 점포에 10만여 명의 패션업계 종사자가 일하는 패션 중심지이자, 도매상가가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 패션 유통 중심지이다. 실력과 유행을 자본 삼아 경쟁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젊은 패션디자이너들이 대박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참신한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 유행하는 옷이며 신발이 바로 다음날 유통되어 팔리는 곳이 바로 동대문이다. 그래서 동대문의 밤은 화려하면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수많은 젊은 패셔니스트들의 꿈과 좌절이 엇갈리고, 전국 옷 도매상들의 아침이 이곳 밤 1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 도심 한가운데 개천에서 노닐다

서울의 한여름 밤. 한강만큼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인기 좋은 곳이 청계천이다. 좁다란 실개천 같은 곳이 왜 인기일까 싶겠지만, 막상 그곳에 발을 담고 있노라면 이곳이 서울 한복판인가 싶은 정도로 시원하고 조용한 곳임을 알게 된다. 구조상 땅 밑으로 설계된 탓이다. 상류에는 가축단



한여름 밤 청계천은 가족, 연인들이 열대야를 피하는 최적의 피서지 역할을 한다. 사진은 청계천 최상류인 청계광장

위로 찾는 이가 많다. 접근성이 좋고 근처에 광화문과 종로, 인사동이 근접해 있어 저녁 식사 겸 산책을 하려고 청계천으로 나오는 것이다.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일부러 풀어놓았다는 미확인 민물고기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청계천을 따라 자리 잡은 빌딩숲 사이로 그나마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고즈넉하게 강 따라 걸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시민들에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 청계천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육중한 고가도로가 그 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서울시민 뇌리에서도 지워지는 듯하다. 청계천 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황학동 구간에 옛 고가 도로의 다리 일부를 남겨놓았는데, 왜 그렇게 생뚱맞게 보이는지. 어쩌면 청계천의 원래의 모습이 지금과 같을 터이니, 청계천을 덮고 세운 고가도로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표상인 것처럼 TV에 보이던 그 시절이 참 어이없어 보이기도 한다.

### 서울의 골목길을 밤에 거닐다

서울의 골목들은 원래 좁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강북에는 언덕배기에 주로 집들이 위치해 있어 종종 길을 걷다 계단을 만나는 일이 잦다. 그러다 보니 강남에 비해 집들이 뽁뽁이 들어서있고 스스로 길치라고 여기는 사람이면 길을 잃어버리기에 딱 맞다. 그러다 재개발 구역으로 잘못 빠지는 날에는 참 난감해진다. 하지만 이런 재미도 있다. 나지막이 자리 잡은 창문 너머로 저녁 밥상을 가운데 놓고 웃고 떠드는 가족들의 소리가 들리고, 고개를 한참 숙여야만 들어설 수 있을 것만 같은 파란 작은 대문에는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집이란 개념이 충실히 다가온다. 문을 닫기 전 마무리에 한참인 동네 세탁소의 분주한 다리미는 연신 증기를 내뿜으며 주인의 마음을 재촉한다. 요즘에는 동네 여기저기에 자원봉사로 나온 미대 학생들이 그런 벽화 작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벽화가 그려지고 나면 신기해하는 동네사람들이 먼저 찾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몇몇 사진이 알려지면서 온갖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습작 장소로 바뀐다. 한가로운 골목이 온갖 화려한 옷과 값비싼 카메라를 둘러맨 자칭 작가들에게 파묻히게 되고 시끄러움 속에 몇몇 슈퍼마켓 주인들 빼고는 그리 반기는 이가 없다. 그래서 가끔은 야심한 밤에 찾아보는 것도 좋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은근히 새어나오는 창문에 비쳐진 그림들은 낮에 보는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밤에 이뤄지는 법



골목길에 가끔 꽃이 피기도 한다. 최근에는 골목가꾸기 이클리로 여기여기 미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벽화가 그려지고 있다. 사진은 낙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화마을 골목길

이다. 서울의 골목과 교감하고 싶다면 밤에 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별 헤는 언덕에 오르다**

종로구 청운동에는 서울의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불리는 ‘운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다. 운동주가 근처 누상동에 살면서 ‘서시’, ‘별 헤는 밤’ 등을 쓰게 되는데 주로 인왕산 자락을 오르내리면서 시 구상을 했다. 시인은 그 언덕에서 인왕산 위에 펼쳐진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에 별을 노래했다. 그리고 멀리 시키렇게 어둠이 깔린 서울 한복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와 진흙 속 어둠 같은 이 나라의 신세를 통탄했을 것이다. 나약해 마지않았던 시인은 그렇게 시를 통해 울분을 터트렸다.

오늘 그 언덕에 올라 서울을 바라본다. 예쁘고 화려하다. 북악산 자락을 휘감고 있는 성곽이 불빛에 반사되어 그 위용이 한층 더하고, 남산 타워에서 시작된 색색의 조명 불빛이 온 도시를 화려함의 극치로 내몬다.

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바라본다. 운동주가 봤을 하늘만큼이나 별이 아름답다. 운동주가 느꼈던 삶의 고통이나 나라에 대한 한탄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다행인지도 모른다. 온전히 서울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시대의 혜택이다. 가끔 야밤에 이 언덕에 올라 서울의 밤을 바라보자. 그리고 서울 하늘 위에 총총히 박힌 별을 바라보며 시인의 되어 시적 언어의 유희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장노출로 세팅된 카메라 속에 그 수많은 별들을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왕산 자락 홍제동에 위치한 안산에 올라 바라본 서울 야경. 보이는 곳은 서대문과 광화문